

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(제58문) : 영생에 대한 고백

안태환 목사 (피스메이커교회)

1. 영생이란 무엇인가?

① 헬라어로 두 단어의 합성어이다. (아이오니스-영원한 / 조에-생명)

② 영원하다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?

⇒ 피조 세계에서는 영원한 것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고 말 할 수 있다.

시90:2 산이 생기기 전,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

창1: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

③ 영생이란 오직 “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”서(로마서 6:23)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한다.

롬6:23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

고후5: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

④ 영생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.

요17: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

고전2:14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,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

⑤ 영생이란

1)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신자들 속에 영원히 거주하시는 것이다.

고전3:16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

2)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기쁨을 갖는 것이다(요17:3).

고전12:3b ...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

요16:22b ...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

3)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며 내세에 완전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영광받으시는 것이다.

고전13:10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

눅1:33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

2. 영생은 누가 베푸시는가?

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.

요5:21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

요5:26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

요3:5b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

⇒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와 성령을 통해서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영생을 베푸신다.

3. 영생은 언제 주어지는가?

① 영생의 시작은 이 세상에서 이미 주어진다.

요5: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

롬14:17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

⇒ 성령님 안에서 거듭난 성도는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산다.

② 영생의 완성은 내세에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.

영생의 완성의 두 단계

1) 육체로부터 해방된 의인의 영혼이 즉시 하늘로 올려지는 단계

2) 육체가 부활할 때 하나님을 대면하는 단계

요일3:2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

고전13:12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

4. 영생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?

① 말씀을 근거로 영생을 확신해야 한다.

1) 신실하신 하나님(신7:9)은

2) 자기 백성을 아시고(딤후2:19)

3)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뿐 아니라(요17:15)

4)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신다(빌1:6).

5) 이 믿음 갖기를 기도해야 한다(막9:24).

② 내세의 목상은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.

“인생의 행복으로 생각되는 것들은 모두 불확실하며 무상하며 허망하며 여러 가지 악한 일과 뒤섞여 있다. 면류관을 생각할 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아야 한다. 먼저 현세를 철저히 무시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진지하게 각성하여 내세를 바라고 명상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.”

(Inst., III, 9:1)